+

광주시 'AI 팩토리' 본격 추진…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부 기술개발 공모 최종 선정 국비 44억여원 등 63억2천만원 투입 제조공정 스마트화·품질 고도화 실현

광주시가 인공지능(AI)을 제조 공정에 접목 해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AI 팩토 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주관 2025년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 사업(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AI 기반 차량 조명모듈 복합공정 자율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지역 자동차부품 제 조 현장에 적용,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품질 고도화 를 실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간이며 총 다. 사업비는 63억2천만원이다. 시비 부담 없이 국비 44 억6천만원과민간자본 18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LG이노텍, 제이디텍,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오소프트, 아 이브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추

주요 내용은 ▲양팔 로봇 기반 조립공정 자동 화 통합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 및 AI 비전 기반 양팔 로봇 제어 기술 개발 ▲공정 통합 관 제 및 최적화를 위한 AI 운영 플랫폼 개발 등이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부품기업 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자율제조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알프스, 한국자동차연구

원 등과 함께 자동차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 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제조현장 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산업부 의 '피지컬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AI 팩토리 전 환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부품 개 발·실증·인증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 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산업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통해 AI와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역 제조사업 전 반에 AI기반 혁신기술을 확산시켜 산업의 지능화 와 미래차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비와 민간자본 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 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토론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해수부 졸속 행정에 애꿎은 지역만 피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회계계정 갑자기 변경 문금주 "정부일방행정…유예기간필요"

해양수산부가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 해 추진 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유예기 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 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 장흥·강진)이 16일 전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 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 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

25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으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 시·군·구 자율계 정으로 이관돼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 계정 변경을 통보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구 자율계정' 예산이 없던지자체는사업지원이불가능해졌다.

실제장흥군의경우올해5월초 2026년 어촌신활 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 을군수 결재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의 예산계정변경으로인해 2026년 사업 지원이 불발되 자당초용역계획을 변경하기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 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 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한참 늦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둬 202 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진도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

전남도, 민관협의회 사업계획 설명

전남도가 신안에 이어 진도에도 해상풍력 집 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안)을논의했다.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 사업은 3개 단지 1.47GW 규모, 2단계 사업은 2개 단지 2.13G W 규모로 총 5개 단지 3.6GW 규모다. 1·2단계는 발전단지 위치 및 접속 선로 등을 고려해 구분 될 뿐 동시에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번 민관협의회를 시작으로 진도 군민 대상 주민설명회 6회 개최, 제2차 민관협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한 뒤 이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 신청서 를 제출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형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최대 0.1)를 부여받아 지역 주민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양시원기자

▶1면 '77주기 여순사건'서 계속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들에 대한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게만 정부가 의 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 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데다, 실질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유족 지원이 빠진 특별법 보완과 희 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부터 도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생활보조비 수급자는 1천11 명이다. 생활보조비 수급 대상자 가운데 80대가 절반 이상, 나머지도 7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유족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열악 한 지방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전남도 거주민으로 한정, 타시·도에 거주하는 희생자유 족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정부 인정을 받은 여순사건 희 생자 유족의 거주지는 전남이 40%, 타 시·도는 6 0% 가량을 각각 차지한다.

생활보조비는 사건 당시 생존을 위해 타 지역 및 해외로 떠난 피해자·유족을 고려해 지급 대 상을 도외 거주자, 국내 거소 신고 해외 동포까 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국가 차원 배·보상의 근거가 될 진상보고서가 법정 기한 이전에 작성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최대한 이 른 시일 내에 희생자 유족 배·보상 조항을 특별 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정부와 특별법 개정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호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상임대표 는 "국가적폭력속유족들은한순간에 가정과생활 기반이 무너져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한다. 국민 화합 을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인 여순 사건을정부에서잘끝맺어야한다"고강조했다.

전남도관계자는 "유족대부분이고령인만큼희 생자·유족명예회복과국가차원의배·보상등피 해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향후 발표될 여순사 건진상보고서를토대로특별법개정이신속하게이 뤄질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은 오 반면, 제주도의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살탕 062)222-1095, 1096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목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A/S ▫임 대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star 062)719-3380, 010-8678-4638

+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